

## 부모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성격 특성이 집단따돌림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박금숙<sup>\*</sup>·문재우<sup>†</sup>·박재산<sup>\*\*</sup>

<sup>\*</sup>한세대학교, <sup>\*\*</sup>한국보건산업진흥원

## The Effect of Parents' Rearing Attitudes and Adolescents'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n Bullying Experiences

Kum Sook Park<sup>\*</sup>·Jae Woo Moon<sup>†</sup>·Jae San Park<sup>\*\*</sup>

<sup>\*</sup>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Hansei University

<sup>\*\*</sup>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fundamental resources for preventing adolescents' bullying behavior. For this aim we analyzed parents' rearing attitudes and adolescents' personality characteristics effecting on bullying experiences.

**Methods:** We carried out a questionnaire survey at middle and high school located in Anyang, Gwacheon, Gunpo from July 8 to 22, 2013. Data were collected from 756 students. By using SPSS 20.0,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ere was a close relationship among parents' rearing attitudes, adolescents'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bullying experiences. Parents' affectionate rearing attitudes reduced adolescents' bullying experiences, on the other hand parents' hostile and rejective rearing attitudes increased. The adolescents with high responsibility had low bullying experiences, otherwise adolescents with high activity had high bullying experiences.

**Conclusions:** In order to reduce bullying experiences parents' rearing attitudes should be changed and education programs that could encourage a sense of responsibility should be introduced.

**Key words:** Adolescents' Personality Characteristics, Bullying Experiences, Parents' Rearing Attitudes

---

접수일 : 2014년 1월 17일, 수정일 : 2014년 4월 22일, 채택일 : 2014년 4월 23일

교신저자 : 문재우(435-742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604-5)

Tel: 031-450-5248 E-mail: moon1229@hansei.ac.kr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의 심리상태는 장기적으로 성인기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성공 여부는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이다. 친구는 청소년기의 필수적 요소인 교제의 즐거움, 도움, 친밀함, 신뢰, 인정, 정서안정 등을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성인기에 진입하도록 하는 중요한 인자이다. 그러나 집단따돌림 가해 경험을 하게 되면 성인이 되었을 때 범죄에 빠질 가능성이 정상 청소년에 비해 4배 가량 높게 나타나(Olweus, 1994) 문제 청소년은 문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 반대로 집단따돌림을 당하게 되면 필수적 요소 모두가 박탈되어 청소년의 성장과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최준영, 2007).

청소년기의 위기는 자신의 내적 갈등이나 부모와 교사와의 갈등에 의해 흔히 발생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가장 빈번하고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청소년 문제는 집단따돌림이 아닐까 싶다. 피해 학생들의 정서적 고통이 가장 큰 학교폭력 유형은 집단따돌림(83.8%)이라는 교육부의 201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학교알리미, www.schoolinfo.go.kr)와 집단따돌림 피해경험 학생이 2009년 9.4%에서 2011년 11.8%로 증가하고 있는 조사(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09, 2011)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집단따돌림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는 틀림이 없다.

청소년기의 집단따돌림 경험은 학교적응, 자아존중감, 또래관계 기술, 내면화 문제행동 등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이경아 등, 2005), 분노와 신체적 공격성, 자살 충동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초래하기도 한다(권재기, 2011). 집단 따돌림을 견디다 못해 자살하거나 자살을 시도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 것은 우리 사회 역시 집단따돌림의 심각성이 내재되어 있는 사회라는 것을 극명하게 대변해 주고 있다.

집단따돌림의 영향 요인은 개인적 요인, 가족요인, 학교요인, 사회요인 등 매우 다양하다. 이처럼 다양한 요인 중 가족요인 특히 부모양육태도는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성장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며 개인의 성격 특성 역시 집단따돌림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집단따돌림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정환경 및 부모의 무관심(32.4%), 친구나 주변 선후배들의 영향(26.0%), 인터넷·온라인 게임 등 유해 매체 영향(18.6%), 입시 스트레스 및 경쟁 위주의 학교문화(13.4%), 학생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9.2%) 등을 지적한 연구(윤철경과 강명숙, 2012)에서도 가정적 요인과 개인의 특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양육태도는 집단따돌림 가해와 피해 경험에 영향을 준다. 부모양육태도와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 간에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최연희와 김나영(2013)은 양육태도가 공격적, 무시적, 거부적인 태도일수록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이 높다고 주장하였으며, 박진영과 채규만(2011), 정화니와 조옥귀(2011)의 연구 역시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와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 간에 정적 상관관계를, 부모의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가 집단따돌림의 피해 행동과 부정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반면에 최은숙과 채준호(2000)의 경우 부모로부터 수용적이지 못한 태도로 양육되어진 경우 따돌림이라는 공격성으로도 표출될 수 있다고 하였다. 집단 따돌림 가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으로 모의 거부적 태도임을 규명한 박진영과 채규만(2011), 자녀에 대한 과잉보호, 지나친 간섭, 부모에 대한 불신 등이 집단따돌림의 가해자를 만들고 분별없이 자녀의 행동을 감추고 도는 부모의 잘못된 양육태도가 따돌림을 주도하는 자녀들의 행동을 정당화시켜주고, 오히려 강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민미자(2000) 연구 역시 집단따돌림 가해의 가정환경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박수진(2005)의 연구에서도 역시 부모양육태도와 성격이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행위에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성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예측되며, 청소년 성격 특성에 따라 집단따돌림의 가해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사회성에 문제를 초래하여(조양선 등, 2013), 분노를 과도하게 억제하거나 표출하는 등 대인관계에서 분노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게 하며(정운성, 2007) 또한 위축과 공격성 등과 같이 또래와의 대인관계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다(김귀연과 김경연, 2005). 부모의 잘못된 양육태도는 자녀들로 하여금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게 만들고 역기능적 대인관계를 초래하여(허재홍, 2006; 서경현, 2012) 집단따돌림의 상황에 노출하게 한다.

집단따돌림의 원인 중 청소년 성격이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유선희, 2007) 집단따돌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성격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양육태도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부모양육태도와 청소년 성격특성은 집단따돌림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인(risk factors)과 혼란스러운 청소년 시절을 적절하게 대처하고 문제행동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s)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매우 필요하다. 특히 집단따돌림 피해요인에 대한 연구는 사후 측면적 대처인 반면, 가해요인에 대한 연구는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집단따돌림 예방 효과 측면에서 볼 때 가해요인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절실하다 하겠다.

## 2. 연구목적

집단 따돌림 피해 청소년에 대한 대책 역시 중요하지만 따돌림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집단 따돌림 가해 청소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며 가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하여 청소년의 가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살펴보고 가해 청소년 선도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기초지식을 제공하는 데 연구 목적이 있다.

## 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및 자료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경기도 과천시, 군포시, 안양시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다. 자료수집방법은 문헌고찰을 통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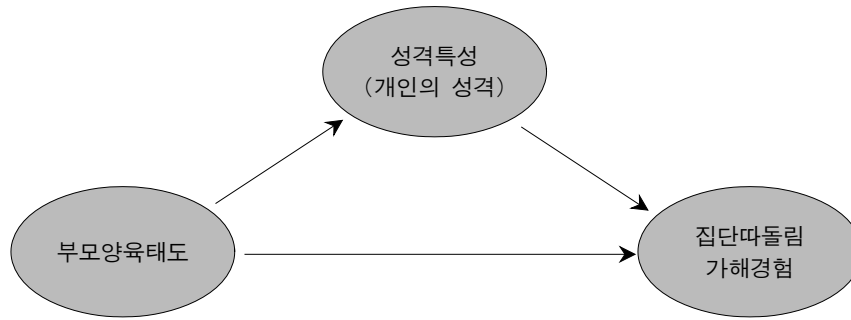
본 조사는 2013년 7월 8일~7월 22일까지 학교관계자의 협조를 얻어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측정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외부기관에서 실시한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설문내용은 무기명으로 그리고 학술적 용도로만 이용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응답자들이 가능한 솔직하게 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3개시(과천시, 군포시, 안양시)의 중·고등학교를 임의표집 하였고, 총 800부의 설문지를 2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 2학년(10학급) 남녀 학생에게 배포한 결과 최종적으로 768부가 회수되어 설문에 대한 응답률은 96%였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경우, 입시대비로 인한 설문지 작성시간을 할애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총 8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한 결과 최종적으로 768부가 회수되어 설문에 대한 응답률은 96%였다. 이 중에서 무응답이 많거나 획일적인 점수를 부여한 응답지 12부를 제외한 756부가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되었다.

## 2.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도출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가 성격특성을 통해 집단따돌림 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3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연구문제 1> 부모양육태도와 성격 특성 간에는 연관성이 있는가?

<연구문제 2> 성격특성이 집단따돌림 가해 경험에 영향을 주는가?

<연구문제 3> 부모양육태도는 집단따돌림 가해 경험에 영향을 주는가?

## 3. 변수정의 및 내용

### 1) 부모양육태도

부모양육태도는 부모 또는 주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보편적으로 보이는 태도 및 행동으로 중·고등학생이 지각하는 태도(김선희, 2004)로 정의하였다. 하위영역은 4개의 영역으로 29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다. 즉 애정적, 적대적, 무시·무관심, 거부적 태도이며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부모양육태도는 애정적 9문항, 적대적 7문항, 거부적 13문항으로 점수가 높은 수록 부모로부터 지각하고 있는 양육태도를 많이 경험한 것이다. 즉 애정적 부모양육태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양육태도가 좋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적대적 부모양육태도, 거부적 양육태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양육태도가 부정적

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김선희(2004)의 선행연구를 참고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Rohner(1984)가 제작한 PARQ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ire) 척도를 기초로 안정만(2001)이 제작하고, 이를 재구성하여 김선희(2004)가 사용했다. PARQ 척도는 본래 4개 영역으로 총 60문항이었으나 안정만에 의해 재구성되면서 4개 영역 총 28문항이 되었다. 이 척도를 김선희가 참고하여 사용하였는데, 각 하위영역은 온정-애정 9문항, 공격-적대 7문항, 무시-무관심 7문항, 거부적 태도는 5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부모양육태도 하위영역 가운데 온정-애정적 태도의 Cronbach's alpha 값은 0.91, 공격-적대적 태도의 Cronbach's alpha 값은 0.83, 무시-무관심 태도의 Cronbach's alpha 값은 0.82, 거부적 태도의 Cronbach's alpha 값은 0.76으로 나타났다.

### 2) 성격특성

성격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 품성(박복식, 2000)으로 정의하였다. 성격특성의 척도는 5점 척도로 60개 문항이며, 하위영역으로 안정성 11개 문항, 지배성 11문항, 사회성 8문항, 책임성 7문항,

사려성 13문항, 활동성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질문 문항 가운데 26개 문항은 부정적으로 물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성격특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남보다 짜증을 많이 낸다’, ‘조그만 실수에도 난처해하거나 당황 한다’, ‘한번당한 창피는 두고두고 잊지 못한다’ 등이다. 그리고 34개 문항은 긍정적으로 물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성격특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세상에는 불행한 일보다 행복한 일이 많다’, ‘내가 할 일을 남에게 미루지 않는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준다’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표준화 되어 있는 이상로 등(1990)이 만든 성격특성 검사와 미국, 일본 등에서 제작 표준화한 성격특성 검사, 그리고 정범모(1988)가 제작한 성격특성 검사를 기초로 박복식(2000)이 수정·보완하여 구성한 성격특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6가지의 하위영역으로 안정성, 사려성, 지배성, 사회성, 책임성, 활동성이며, 각각의 성격특성 요인은 10문항씩 총 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식 5점 척도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각 성격 특성의 경향 및 정도가 낮은 것을 의미하고, 높을수록 강하다는 것을 나타냈다. 성격특성의 하위영역 가운데 안정성의 Cronbach’s alpha 값은 0.658 지배성의 Cronbach’s alpha 값은 0.641, 사회성의 Cronbach’s alpha 값은 0.690, 책임성의 Cronbach’s alpha 값은 0.679, 사려성의 Cronbach’s alpha 값은 0.606, 활동성의 Cronbach’s alpha 값은 0.643으로 나타났다.

### 3) 집단따돌림 가해경험

집단따돌림은 또래집단 중 청소년들이 집단을 이루어 암묵적인 약속 하에 특정 개인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심리적, 언어적, 신체적 고통을 주고 공격을 가해하거나 피해당하는 행위(Olweus, 1994)로

규정하고자 한다. 집단따돌림 가해 경험은 직접적인 공격으로 때리기, 빼앗기, 망가뜨리기 등의 물리형과 어떤 일에 끼워 주지 않으면서 다른 또래들을 부추겨서 간접적으로 공격을 가하는 소외형, 그리고 신체적 특징, 외모로 놀리거나 위협하는 언어적 공격을 가하는 행위(김선희, 2004)이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종속변수는 14세 이상 중·고등학생이 인지하는 집단따돌림 가해경험 정도이다. 집단따돌림 가해경험은 24개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하위유형은 물리형, 소외형, 언어형으로 구분했다. 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집단따돌림 가해경험이 높음을 의미한다.

집단따돌림 가해경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최은숙(1999)의 선행연구를 참조해 전민영(2007)이 제작한 것을 수정·보완하여 척도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가해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영역으로는 소외형 5문항, 언어형 5문항, 신체형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자기보고식 질문 지이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집단따돌림의 가해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따돌림의 가해 경험 정도의 하위영역 가운데 소외형의 Cronbach’s alpha 값은 0.76, 언어형의 Cronbach’s alpha 값은 0.72, 신체형의 Cronbach’s alpha 값은 0.56으로 나타났다.

###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학년, 거주형태, 형제·자매의 수, 삶의 만족도, 가정생활의 만족도, 학교생활의 만족도, 어머니와의 친밀도, 아버지와의 친밀도, 학업성적, 아버지 교육정도, 어머니 교육정도, 경제적 상태, 아버지 직업, 어머니 직업 등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변수 구분 및 문항수

변수	세부분항	척도	문항수
부모양육태도	애정적, 적대적, 거부적		29문항
성격특성	안정성, 지배성, 사회성, 책임성, 사려성, 활동성	서열 (5점)	60문항
집단따돌림 가해경험	물리형, 소외형, 언어형		24문항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학년, 거주형태, 형제·자매의 수, 삶의 만족도, 가정생활의 만족도, 학교생활의 만족도, 어머니와의 친밀도, 아버지와의 친밀도, 학업성적, 아버지의 학력, 어머니의 학력, 경제적 상태, 아버지 직업, 어머니 직업	명목 또는 서열	16문항
	전체		129 문항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처리는 IBM SPSS Statistics 20.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였다. 분석내용은 기술통계측면에서 빈도분석을 통해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둘째, 부모양육태도, 성격특성, 집단따돌림 가해경험 등 관련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 산출과 함께 측정된 각 문항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이론변수들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문항들의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각 이론변수들에 대한 측정변수들의 Cronbach's alpha 값을 구하여 내적 일치도를 살펴보았다. 셋째, 부모양육태도와 성격특성, 그리고 집단따돌림 가해경험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부모양육태도, 성격특성이 종속변수인 집단따돌림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성격특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Ⅲ.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으며, 성별은 '남학생' 306명(40.5%), '여학생' 450명(59.5%)이었다. 학년을 보면 '중학생'이 410명(54.2%), '고등학생'이 346명(45.8%)로 나타났다. 부모동거여부의 경우 '부모 모두 동거하고 있다'가 681명(90.1%)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비동거'하는 학생이 74명(9.8%)으로 나타났다. 형제·자매의 수는 '나를 포함해 2명 이상이다'가 670명(90.1%)으로 가장 많았고, '나 혼자다'는 85명(11.2%)으로 나타났다.

삶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는 '만족함'이 293명(38.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정생활의 만족도는 '만족함'이 266명(35.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생들에 대한 부모와의 친밀도에 있어서는 아버지와 '친밀함'이 698명(92.3%), 어머니와 '친밀함'이 728명(96.2%)으로 아버지보다 어머니와의 친밀도가 높게 나타났다. 학업성적의 경우 '보통임' 351명(46.4%), '좋지 못한 편임' 187명(24.7%), '좋은 편임' 140명(18.5%)으로 나타났다. 종교를 보면 종교가 없는 학생이 344명(45.5%)으로 가장 많았고, '기독교' 259명(34.3%), '천주교' 78명(10.3%), '불교' 66

명(8.7%) 순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학력은 '대학교 졸업(전문대 포함)'이 420명(55.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고등학교 졸업'이 151명(20.0%)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 또한 '대학교 졸업(전문대 포함)'이 408명(54.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고등학교 졸업'이 203(26.9%)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수준은 '보통'이 465명(61.5%)으로 가장 많았고, '잘산다'가 205명(27.1%)으로 나타났다.

####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306	40.5
	여자	450	59.5
학년	중학교	410	54.2
	고등학교	346	45.8
부모동거여부	동거	681	90.1
	비동거	74	9.8
	무응답	1	0.1
형제·자매의 수	나 혼자	85	11.2
	나를 포함해 2명 이상	670	88.6
	무응답	1	0.1
삶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13	1.7
	불만족	70	9.3
	보통	235	31.1
	만족	293	38.8
	매우 만족	145	19.2
가정생활 만족도	매우 불만족	15	2.0
	불만족	53	7.0
	보통	212	28.0
	만족	266	35.2
	매우 만족	210	27.8
어머니와 친밀도	친밀하지 않음	23	3.1
	친밀함	728	96.2
	무응답	5	0.7
아버지와 친밀도	친밀하지 않음	55	7.3
	친밀함	698	92.3
	무응답	3	0.4
학업성적	매우 좋지 못함	45	6.0
	좋지 못함	187	24.7
	보통	351	46.4
	좋음	140	18.5
	매우 좋음	33	4.4

	구분	빈도	퍼센트
종교	천주교	78	10.3
	기독교	259	34.3
	불교	66	8.7
	없음	344	45.5
	기타	9	1.2
아버지의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4	0.5
	중학교 졸업	14	1.9
	고등학교 졸업	151	20.0
	대학교 졸업(전문대 포함)	420	55.6
	대학원 졸업	109	14.4
	무응답	58	7.7
어머니의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8	1.1
	중학교 졸업	16	2.1
	고등학교 졸업	203	26.9
	대학교 졸업(전문대 포함)	408	54.0
	대학원 졸업	66	8.7
	무응답	55	7.3
경제수준	매우 잘 산다	28	3.7
	잘 산다	205	27.2
	보통	465	61.5
	못 산다	46	6.1
	매우 못 산다	11	1.5
	무응답	55	7.3

## 2. 변수별 기술통계량 및 신뢰도

변수별 기술통계량 및 신뢰도 값은 <표 3>에 제시하였다. 첫째, 적대적 부모양육태도의 평균이 5점 만점에 2.369점으로 나타났으며, '애정적 부모양육태도'의 평균이 3.516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모양육태도 유형 모두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alpha 값은 0.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격특성의 기술통

계량을 보면 사회성이 5점 만점에 3.67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격특성의 Cronbach's alpha 값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집단따돌림 가해경험에 대한 기술통계량 값과 신뢰도 값을 보면 '소외형'의 평균이 5점 만점에 1.782점으로 가장 높았다. 가해경험의 Cronbach's alpha 값은 0.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lt;표 3&gt; 변수별 기술통계량 및 신뢰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부모양육태도	애정적	3.516	0.839	0.929
	적대적	2.368	0.978	0.936
	거부적	1.913	0.949	0.977
성격특성	안정성	3.084	0.800	0.807
	지배성	3.322	0.685	0.877
	사회성	3.678	0.786	0.728
	책임성	3.163	0.666	0.819
	사려성	3.342	0.666	0.825
	활동성	2.948	0.872	0.797
집단따돌림 가해경험	물리형	1.571	0.864	0.961
	소외형	1.782	0.948	0.953
	언어형	1.593	0.903	0.974

### 3. 변수별 관련성 분석

부모양육태도와 성격특성, 가해경험을 중심으로 상관분석을 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상관분석을 통해 다중공선성 문제를 살펴본 결과 기준치인 0.80 이상 되는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애정적 부모양육태도와 성격특성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종속변수인 집단따돌림 가해경험과

의 관계에 있어서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적대적 부모양육태도, 거부적 부모양육태도와 성격특성 간에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종속변수인 집단따돌림 가해경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성격 특성과 집단따돌림 가해경험과의 관계를 보면 사회성, 책임성, 사려성은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활동성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4&gt; 부모양육태도와 성격특성, 집단따돌림 가해경험간 관련성 분석

구분	부모양육태도			성격특성						집단따돌림 가해경험
	애정적	적대적	거부적	안정성	지배성	사회성	책임성	사려성	활동성	
부모 양육 태도	애정적	1.000								
	적대적	-0.446**	1.000							
	거부적	-0.529**	0.717**	1.000						
성격 특성	안정성	0.131**	-0.183**	-0.137**	1.000					
	지배성	0.372**	-0.100**	-0.157**	0.157**	1.000				
	사회성	0.259**	-0.286**	-0.322**	0.432**	0.311**	1.000			
	책임성	0.114**	-0.273**	-0.250**	0.495**	0.175**	0.437**	1.000		
	사려성	0.316**	-0.079**	-0.118**	0.082*	0.528**	0.151**	0.159**	1.000	
	활동성	0.070	-0.079**	0.083*	0.050	0.359**	-0.092*	-0.092*	0.254**	1.000
집단따돌림 가해경험	-0.258**	0.096**	0.607**	0.012	-0.079	-0.207**	-0.207**	-0.090**	0.160**	1.000

\* p&lt;0.05, \*\* p&lt;0.01

<표 5>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모형	모형 1 (종속변수 : 집단따돌림 가해경험)		모형 2 (종속변수 : 집단따돌림 가해경험)		모형 3 (종속변수 : 집단따돌림 가해경험)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상수)	1.597**	0.143	0.537*	0.223	0.964**	0.302	
일반적 특성 변수	성별	0.502**	0.065	0.258**	0.055	0.235**	0.054
	학년	-0.152*	0.064	-0.040	0.053	-0.076	0.053
	동거여부	0.015	0.123	-0.031	0.100	-0.007	0.098
	형제자매의 수	0.015	0.102	-0.136	0.083	0.122	0.082
	삶의 만족도	0.202	0.134	0.092	0.107	-0.077	0.105
	가정생활 만족도	0.202	0.134	0.073	0.110	0.083	0.108
	어머니와의 친밀정도	0.056	0.119	0.053	0.097	0.040	0.097
	아버지와의 친밀정도	-0.145	0.136	-0.224*	0.111	-0.226*	0.109
	학업성적	0.028	0.073	-0.041	0.060	-0.098	0.060
	종교	-0.015	0.064	-0.069	0.052	-0.074	0.051
	아버지 학력	0.039	0.096	0.005	0.078	0.031	0.077
	어머니 학력	0.095	0.085	0.131	0.070	0.129	0.068
경제수준	-0.101	0.060	0.070**	-0.241	-0.243**	0.058	
부모 양육 태도	애정적		0.043	0.038	0.045	0.040	
	적대적		0.018	0.038	0.008	0.038	
	거부적		0.533**	0.042	0.500**	0.042	
성격 특성	안정성				-0.126**	0.039	
	지배성				-0.068	0.049	
	사회성				-0.030	0.040	
	책임성				-0.167**	0.048	
	사려성				0.043	0.045	
활동성					0.100**	0.003	
F 통계량	5.725**		28.239**		22.291**		
R제곱 통계량	0.101		0.407		0.436		
수정된 R제곱 통계량	0.083		0.392		0.417		

\* p<0.05, \*\* p<0.01

#### 4. 부모양육태도와 성격특성이 집단따돌림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부모양육태도와 성격특성이 집단따돌림 가해경

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첫째, 모형1에서 일반적 특성 변수를 더미처리한 후 집단따돌림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성별과 학년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둘째, 모

형2에서는 부모양육태도 변수를 투입한 결과 거부적 부모양육태도가 집단따돌림 가해경험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533). 즉 거부적 부모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집단따돌림 가해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39.2%로 나타났다. 셋째, 모형3에서는 성격특성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성격특성의 하위요인인 안정성(beta=-0.126)과 책임성(beta=-0.167), 그리고 활동성(beta=0.100)이 집단따돌림 가해경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안정성과 책임성이 높은 성격특성일수록 집단따돌림 가해경험은 낮았고, 반대로 활동성이 높은 성격특성일수록 집단따돌림 가해경험은 높게 나타났다. 최종적인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모형2의 설명력 39.2%보다 증가한 41.7%로 나타났다. Baron과 Kenny(1986) 방법에 의거 성격특성의 매개효과를 보면 매개변수인 안정성, 책임성, 활동성이 가해경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독립변수인 거부적 부모양육태도가 가해경험에 미치는 추정치가 감소하였고(0.533\*\*→0.500\*\*), 회귀계수에 대한 p값도 모형3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부모양육태도와 집단따돌림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격특성요인은 부분매개 관계가 성립됨을 알 수 있었다.

#### IV. 논의

청소년 사망원인으로 자살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대변하고 있다. 청소년의 자살 원인으로는 우울, 학습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겠지만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청소년 자살 사건 기사를 자주 접한 현실과 따돌림의 피해를 경험한 학생은 무경험 학생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은 자살충동을 경험한다는 연구(최준영, 2007) 등에 비추어 볼 때 집단따돌림은 청소년 자살의 중요한 요인임은 틀림이 없다. 또한 또래 집단과의 관계를 통해 대인관계의

기본적 틀이 형성되고 자아개념 및 자아정체감 발달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또래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정화니와 조옥귀, 2011) 집단 따돌림의 영향은 장기적이며 방대하다 하겠다.

집단따돌림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송미선(2007)은 사회·문화적 요인, 학교환경적 요인, 가정적 요인, 개인적 요인 등 4가지로 구분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회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으로 나누고,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부모양육태도를, 개인적 요인으로 성격특성을 살펴보았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듯이 부모는 자녀의 모든 면에 영향을 준다.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 성장의 동력 역할도 하지만 오히려 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실은 집단따돌림과 부모양육태도와의 관련성을 연구한 논문(유지영, 2004; 송미선, 2007; Pontzer, 2009)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따라서 부정적인 부모양육태도는 자녀의 안정감과 자신감에 손상을 줄 뿐만 아니라 무기력과 좌절감을 야기시켜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며 집단따돌림 가해와 같은 문제행동을 일으키게 한다(방신의, 2003).

부모의 강압적, 처벌적, 적대적, 비난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에게 적대적, 공격적 경험으로 각인되고 답습되어 또래관계에서 쉽게 재현되고(조성호, 1999), 결국 집단따돌림의 가해자로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애정적인 부모양육태도는 집단따돌림의 가해 경험을 줄여주는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적대적, 거부적 부모양육태도는 오히려 가해경험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보여준 본 연구에서도 증명되었다. 이는 부모의 독재적이고 방임적인 양육태도가 자녀의 학교폭력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한 연구(양계희, 2011)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집단따돌림과 같은 공격성은 폭력의 빈번한 목적을 통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고 배우게 되기 때문에 부모는 유전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동일시의 모델로서 직접적 양육과정에서 자녀의 가치관의

나 생활습관, 성격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이미현, 2008).

본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 역시 자녀의 성격 특성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안정성, 지배성, 사회성, 책임성, 사려성 등의 성격형성에 긍정적인 관련이 있는 반면, 적대적 또는 거부적 양육태도는 모두 부정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격특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권혜경, 2002; 이강옥 등, 2009; 양계희, 2011)의 연구와 동일하였다. 따라서 부모의 적대적, 거부적 양육태도는 전위된 공격성(displaced aggression)으로 청소년의 내면에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행동은 성격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청소년의 성격특성은 집단따돌림 가해행위와 관련이 깊다. 집단따돌림 가해자의 성격특성으로는 공격성과 충동성(심선보, 2000; 박수진, 2005; 장미향과 성한기, 2007), 낮은 공감능력과 배려심(이해경과 김혜원, 2000; 장미향과 성한기, 2007)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책임성이 높은 성격일수록 가해경험이 낮았고 반면에 활동성이 높은 성격일수록 가해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공격성이 강한 청소년은 대인관계에서 공격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며(Guerra와 Slaby, 1990), 비공격적인 청소년에 비해 언어적 해결책 보다는 비언어적이고 직접적인 행동과 관련된 방법을 동원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Lochman과 Lampron, 1986)에 비추어 볼 때 높은 활동성에 근거한 공격성은 집단따돌림 가해 경험에 대한 가장 강력한 행동적 예측요인이라 할 수 있다. 높은 자기통제능력을 가진 청소년이 낮은 공격적 행동성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공격적 행동성향을 보이는 연구(최수미와 김동일, 2010)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 높은 책임성은 가해경험을 줄여주는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책임성과 같은 내적 통제 성격의 경우 가해행동의 가장 강력한 보호요인이라는 연구(이신옥, 2003; 조유진, 2008)와도 동일한 맥락

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부모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성격특성이 집단따돌림 가해 경험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규명되었지만 어떠한 과정을 통해 상호관련이 있는가는 밝히지 못하였다. 집단따돌림 가해행동이 고도의 계획되고 조직화된 경향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책임감이나 자기통제력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것인지는 심도 있는 후속연구를 통해 그 과정이 규명되기를 기대한다.

## V. 결론

집단따돌림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되었다. 집단따돌림은 피해자 중심의 사후적 대책을 강구하는 것 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피해를 본 청소년의 사회 심리적 손상은 쉽게 치유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단따돌림의 가해 경험자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사전에 예방하는 접근이 매우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으며, 경기도 과천시, 군포시, 안양시 중·고등학생 756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부모양육태도와 성격특성, 집단따돌림 가해 경험 간의 관련성 여부를 규명하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 부모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성격특성과 집단따돌림 가해 경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특성은 부모양육태도와 집단따돌림 가해경험 간에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책임성이라는 성격 특성은 집단따돌림 가해경험을 감소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규명되었다. 결국 청소년 따돌림 가해 경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으로 바뀌어야 하며, 청소년 스스로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진정으로 인식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중화기술이론(Techniques of Neutralization Theory)

에 의하면 집단따돌림 가해행위를 하는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합법적이고 바람직한 규범을 알고 있어서 집단따돌림 행위는 나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책임의 부인, 가해의 부인, 피해의 부인, 비난자에 대한 비난, 상위의 충성심이라는 정당화(자기합리화) 기술을 통해 집단따돌림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공계순 등, 2003). 합법적인 가치규범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화기술을 통해 자신을 합리화하여 지속적으로 가해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임준태와 강소영, 2009) 책임감을 강조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교훈적이고 일방적인 지식 전달은 집단따돌림 가해행동의 예방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청소년의 책임감 고양을 위한 다양한 접근이 요구된다. 집단따돌림 가해 경험은 자신의 행동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해 발생하는 외현화 문제행동(externalized problem behavior)이기 때문에 충동을 억제하는 자아통제(ego-control)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원론적인 책임감 교육은 청소년 집단따돌림 가해 경험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보건교육 중 정신건강 부문에서 “학교폭력, 분노·갈등 조절, 자아존중감 높이기, 감정표현과 의사소통, 건강한 삶 등”을 교육할 때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의 도입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경기도 일부지역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에 의해 수집된 자료이기 때문에 학교폭력가해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 있어서 실제결과와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 참고문헌

1. 공계순, 박현선, 오승환, 이상균, 이현주. 아동복지론. 서울: 학지사, 2003. pp.231-232.
2. 권재기.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의 발달양상과 내면화, 외현화 문제행동의 변화-잠재계층 성장분석(LCGA), 다집단 성장혼합모형(GMM)을 이용한 종단연구. 한국아동복지학 2011;34:96-127.
3. 권혜경.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성격형성[석사학위논문]. 서울: 서강대학교 대학원, 2003.
4. 김귀연, 김경연. 아동의 위축 및 공격성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관계: 거부적 양육행동, 또래 괴롭힘, 부정적 부모표상 및 부정적 또래표상의 인과효과. 아동학회지 2005;26(6):247-266.
5. 김선희. 부모양육태도 및 아동학대피해와 집단따돌림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시 저소득 지역의 중·고교 재학생을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4.
6. 민미자.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과 주도하는 학생 및 일반학생의 성격 특성 및 감성지능 비교 연구[석사학위논문]. 강원: 강원대학교 대학원, 2000.
7. 박복식. 자기관리기법 훈련이 초등학교 아동의 인성특성 변화에 미치는 효과[석사학위논문]. 충북: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00.
8. 박수진.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신의 성격 및 대인관계성향이 중학생의 집단따돌림 행위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경남: 경남대학교 대학원, 2005.
9. 박진영, 채규만. 집단 따돌림 피해 및 가해 아동의 관련 변인 분석 : 부모의 양육 행동과 아동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011;30(1):45-67.
10. 방신의. 부모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대인관계 성향이 집단따돌림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대전: 한남대학교 대학원, 2003.
11. 서경현. 초기 청소년기에 있는 아동의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및 부모 간 양육태도 불일치와 사회불안 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012;19(1):207-226.
12. 송미선. 신도시 초등학교, 중학생 집단따돌림 실

- 태 및 관련변인 분석[석사학위논문]. 인천: 경인교육대학교 대학원, 2007.
13. 심선보. 가정환경변인, 심리사회적 특성과 집단 따돌림 경험유형과의 관계[석사학위논문]. 서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00.
  14. 안정만. 부모양육태도와 아동학대 피해 경험이 학교폭력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1.
  15. 양계희.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성격 및 학교 폭력 경험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경기: 대진대학교 대학원, 2011.
  16. 유선희. 집단 따돌림 가해·피해 아동의 사회적 지위와 성격 특성에 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경기: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17. 유지영. 부모-자녀 관계, 자녀의 성숙도와 집단 따돌림 피해정도간의 관계[석사학위논문]. 서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2004.
  18. 윤철경, 강명숙. 학교폭력 및 학교문화에 대한 학부모·교사 인식 조사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2012.
  19. 이강욱, 이미현, 한복환.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성격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비즈니스리뷰 2009;2(2):181-201.
  20. 이경아, 이정운, 양현정. 집단따돌림이 청소년기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2005; 6(2):531-543.
  21. 이미현.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성격 및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광주: 조선대학교 대학원, 2008.
  22. 이상로, 변창진, 진위교. 표준화 성격진단검사 실시요강. 서울: 중앙적설출판사. 1990.
  23. 이신옥. 자정폭력경험청소년의 학교폭력과 보호 요인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3.
  24. 이해경, 김혜원. 집단괴롭힘의 가해와 피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심리적 변인들. 한국 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000;14(1):45-64.
  25. 임준태, 강소영. 청소년 집단괴롭힘의 심리적 기제와 통제방안. 사회과학연구 2009;16(1):179-203.
  26. 장미향, 성한기. 집단따돌림 피해 및 가해경험과 사회정체성 및 사회지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 사회 및 성격 2007;21(1):77-87.
  27. 전민영. 인식대상에 따른 집단따돌림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자아개념의 비교[석사학위논문]. 서울: 국민대학교 대학원, 2007.
  28. 정범모. 인성검사 방법요강. 서울: 코리아테스팅 센터, 1988.
  29. 정화니, 조옥귀. 부모의 양육태도와 집단따돌림 행동과의 관계에서 공감과 자존감의 역할. 교육이론과 실천 2011;21:87-114.
  30. 조성호. 학교폭력에 대한 심리학적 개입의 허와 실. 한국심리학회 심포지엄 발표집, 1999.
  31. 조양선, 손술, 서경현.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방식과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 부모화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013;18(1):203-217.
  32. 조유진. 집단괴롭힘 이해경험과 가해행동의 관계에 대한 개인내적 중재변인 탐색. 아동학회지 2008;29(5):215-226.
  33. 정윤성.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수용-거부양육태도에 따른 대학생의 분노표현방식의 차이. 청소년상담연구 2007;15(1):91-103.
  34. 정지나, 김지현.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 유아의 공격성과 사회적 기술이 유아의 또래배척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011;20(5):983-992.
  35.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실태조사보고서. 서울: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09, 2011.
  36. 최수미, 김동일. 따돌림 관여 유형에 따른 사회적 기술과 공격적 행동성향. 청소년상담연구 2010; 18(1):59-72.
  37. 최연희, 김나영. 집단따돌림 피해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집단따돌림에 미치는 영

- 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013;24(2):214-224.
38. 최은숙, 채준호. 집단따돌림 가해, 피해 경향과 관련된 심리적 요인에 관한 일 연구. 인간이해 2000;21:109-137.
39. 최은숙. 집단따돌림 가해, 피해 경향과 관련된 심리적 요인에 관한 일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 서강대학교 대학원, 1999.
40. 최준영. 청소년의 집단따돌림과 자살 관련 태도. 사회연구 2007;14:223-238.
41. 허재홍. 부모양육태도, 완벽주의, 외상경험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06;18(3):593-611.
42. Baron, R. M. & Kenny, D. A.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86;51(6):1173-1182.
43. Daniel Pontzer. A theoretical test of bullying behavior : parenting, personality, and the bully/victim relationship. *Journal of Family Violence* 2009;25(3):259-273.
44. Guerra, N. G. & Slaby, R. G. Cognitive mediators of aggression in adolescent offender: 2. Interven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990;26:269-277.
45. Lochman, J. E. & Lampron, L. B. Situational social problem solving skills and self-esteem of aggressive and nonaggressive boy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986;14:605-617.
46. Olweus. D. Annotation: Bullying at school: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1994;35:1171-1190.
47. Rohner, R. P. Handbook for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Center for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the University of Connecticut 1984.
48.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http://www.schoolinfo.go.kr))